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조선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이인범 목사의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의 활동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원적을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유촌리, 생년월일을 1896년(명치 29년) 9월 25일생으로 기재하였다. 학력과 경력으로는, 1919년(대정 8년) 동양선교회 신학원 졸업, 1919-24년 12월까지 성결교회전도사 시무, 1925년 9월부터 1933년 9월까지 동경시 심천구 조선기독교회 목사 시무, 1933년 9월 조선 인천부 송현리 기독교회 목사부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내용은 이인범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고, 1920년에 졸업하였으며,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22년(혹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1924년에 동막교회로 전근되어 시무하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는 내용이었다[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1920년 6월 1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이인범(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 2369호 4면(대정 9년 7월 3일)>, 1921년 1월 15일에는 이인범의 포교자거주지를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에서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으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6호 6면(대정 10년 6월 7일)>. 그리고 1924년 8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는 이인범의 포교자

거주지를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 12번지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교회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74호 6면(대정 13년 11월 12일)>. 이어서 동양선교회는 1925년 1월 29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성결교회에 이인범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92호 7면(대정 14년 4월 9일)>. 그리고 1926년 12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는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5면(소화 2년 5월 27일)>, 1927년 1월 27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동막성결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85번지)을 신포교담임자 박정훈(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64의 20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4면(소화 2년 5월 27일)>.

이인범 목사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 제1대 담임자로 섬겼으며,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10년 동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로 섬겼다.

2.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및 교파명변경계 제출

1) W. D. 커닝햄과 J. 마이클 셸리 사이의 분열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문서들의 하나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11년도서류)>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34년 3월 28일 커닝햄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편지로써 성낙소가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인가와 교단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의 공문을 받고 보낸 회신이다. 커닝햄은 이 회신에서 성낙소는 작년(1933년 5월 20일)에 해임되었고, 인천 송현리의 이인범이 성낙소의 후임으로 임명받았으며, 교단명은 기독교회(Church of Christ)라고 답변하였다. 학무국에서 커닝햄에게 확인 공문을 보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만 1년쯤 지난 1935년 3월 20일경에 J. 마이클 켈리가족이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켈리는 목회자로서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였고, 커닝햄이 모집한 한국선교사에 지원하여 파송받기 직전까지 1-2년간 동경 요츠야(사곡)선교회의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켈리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 달쯤 후인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는데,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등록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총독부가 어떤 연유로 또 한 하나의 ‘기독교회’를 등록시켜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회(남대문통)’으로 표기하였다. 켈리가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성낙소가 이미 1933년 5월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신분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인범 목사가 포교규칙을 위반하고 포교계도 없이, 포교담임자선임계도 없이, 무엇보다도 포교관리자의 법적자격도 없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성낙소가 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되었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켈리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도의 선교를 펼칠 계획이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켈리는 이인범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실을 미국교회들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서 커닝햄과

분열하였다.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는 이미 1934년 말부터 자신이 파면한 존 T. 채이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파면에 항의하여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상황에서 1935-36년 사이에 또 다시 J. 마이클 쉘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모금이 쉽지 않던 때였다. 커닝햄은 아마도 이런 문제들의 수습을 위해서 1936년 4월 24일 동경을 떠나 요코하마에서 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고, 5월 14일부터 선교여정을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Imperial) 카운티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거쳐 콜로라도 주 포트콜린스(Fort Collins)에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드려 선교여행을 중단하였으며, 5월 22일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압으로 향년 72세로 별세하였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포교에관한건(소화11년도서류)>에 J. 마이클 쉘리와 W. D. 커닝햄 사이에 있었던 분열을 가늠할 수 있는 문서들이 남아있다.

조선총독부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로부터 1936년 5월 25일자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incinnati

조선총독부,
한국 서울.

총독 각하께,

제가 만일 귀하의 직함을 바르게 적지 못하였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귀국의 직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임

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귀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선교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충하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사무실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사실의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귀국의 파일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신에 회람서신을 동봉합니다. 이 회람서신은 저희가 수취하고 있는 상충된 진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귀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W. D. 커닝햄이 이 서신에 동봉한 회람서신의 제1번에서 주장한대로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여 한국에서 선교사역하고 있습니까?

2. W. D. 커닝햄은 이 서신에 동봉한 회람서신의 제2번에서 진술한대로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승인과 인지 하에서 운영되는 12개의 한국인 교회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서신의 목적은 W. D. 커닝햄을 궁지에 몰려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답변에 이들 12개의 교회들이 실제로 귀하의 영예로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포함된다면, 저희들은 귀하의 정부가 그 같은 사실을 확증해준 사실로 인해서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W. D. 커닝햄의 친구들입니다. 또 커닝햄의 사역에 대해서 상충하는 진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커닝햄에 대한 저희들의 신뢰를 유지시킬만한 진실이 공적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신용 우표를 동봉합니다. 저희의 물음에 신속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보를 수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저희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 President)

별첨1: 요츠야선교회(The Yotsuya Mission, Yotsuy,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가 1935년 8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발송한 진술서 내용.

진실과 명예를 사랑하는 형제에게,

제 앞에 회람 및 개인 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있는 J. M. 셸리가 요츠야선교회의 신실한 후원자들(rope-holders)에게 보낸 것들이고, 요츠야선교회를 중상함으로써 그들의 후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적절치 아니한 수많은 현란한 비 진리들과 명예롭지 못한 태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느낍니다. 셸리가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5월 25일 발송한 사신들과 회람서신에서 셸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자 주: 5월 25일은 셸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지 2달 후이고, 조선총독부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한지 불과 한 달 후이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사역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그 어떤 허가도 없고, 비밀리에 위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들은 어느 때라도 수치스럽게 폐쇄당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역할 정부의 허가를 갖고 있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역을 착수하기 전에 서울에 주재한 조선총독(역자 주: 총독과는 동경에서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음)을 방문하였고, 법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들었고 또 그것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1935년 7월 23일 저는 그동안 바뀐 법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총독의 동경사무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사역했다고요?” 한국인들에게 유익이 될 일본에 일찍이 세워진 첫 번째 선교회 빌딩 건축에 보태라고 일본정부가 수년 전 우리의 선교회에 일천엔(Yen) 상금을 수여했을 때, 정부는 우리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수고를 치하하는 정중한 내용을 적은 서신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밀리에 위법적으로 사역을 했다고요?”

“단지 2명의 목사들만이 고용되어 12개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국에 9명의 유급 사역자들과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15명을 해고시켰다.” 만약 신약성서의 기준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이라도 해고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절반조차도 해고당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셸리는 우리의 12개의 포교소들 가운데 단지 2개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은 매우 격노하였는데, 그 이유는 셸리가 그를 요츠야선교회에서 떼어놓으려고 점잖지 못한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심지

어 우리가 그에게 켈리와 함께 일하라고 권한다고 해도 자신은 거절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동양의 교훈은 서양의 교훈에 명예가 됩니다!)

“우리가 그를 동경에 묶어두려고 압박하였다.” 그 “압박”은 단지 제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켈리가 자신의 필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5년이나 10년 걸려서 터득하게 될 선교사역에 대해서 일천배가량은 더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켈리가 단신으로 새로운 필드에 뛰어들기 전에 베테랑 선교사들로부터 약간의 경험을 얻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켈리는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자 주: 커닝햄은 1934년 말에 급여삭감을 항의하는 존 T. 채이스 가족을 파면시켰고, 그로 인해서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임해버렸기 때문에 동역자가 절실한 형편이었다.)

명예의 기준과 상반된 것을 다음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긴 후원자 명단을 보내주었고, 그들에게 개인 서신들을 보내 켈리를 돕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주소록을 이용하여 그의 5월 25일자 회람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서신에서 그는 부도덕하고 심히 어리석게도 우리의 선교회를 왜곡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후원자는 그 편지를 받고 곧 바로 우리에게 500달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우리 집에 일주일간 머물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스를 음모와 일을 꾸미면서 말입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배삐로 15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우리를 거스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인식하듯이 요츠야선교회 전도자들이 그와 동역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들을 고용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결한 사람이라면 다른 두 가지 이유들, 곧 저들 전도자들과 요츠야선교회를 인식할 것입니다.

켈리는 공개적이고 뻔뻔하게도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우리의 사역자들을 사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만일 그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원한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전도자들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정신훈련-모순투성이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교인이 100명 되는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40명뿐이지만, 우리가 개방 회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개방 회원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자 주: ‘개방 회원제’란 침수세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을 정회원 교인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협력을 약속했지만, 오직 반대만 해왔습니다.

우리의 한국사역은 부주의하게 관리되지만, 부적절한 사람들을 걸러냄으로써 신중함이 입증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켈리의 회람서신에 대한 많은 비평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시간과 우편요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 속에서 이 편지에 서명합니다.

회장 W. D. 커닝햄(W. D. Cunningham, director)

에밀리 B. 커닝햄(Emily B. Cunningham)

에딧 쉴멜(Edith Shimmel)

에텔 존스(Ethel Jones)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1936년 7월 17일 기안하여 25일 결재한 문서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가 5월 25일 조선총독부에서 보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포교활동에 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답변의 내용은 성낙소가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고, 1936년 1월 10일부터는 이인범이 포교관리자이며, 현재(1936년 7월)까지 등록된 포교소는 총 3개으로써 전 포교관리자 성낙소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에 발송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장님께,

귀하의 지난 5월 25일자 편지 곧 동경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에서 펼치고 있는 선교사역에 관해서 요청하신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동경 요츠야선교회는 이곳 선교사역의 포교관리자로 성낙소(Seirakusho, Song Nak So)를 임명하여 1932년 6월 11일 사역개시

신청서(포교관리자신청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세 개의 교회들이 정부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성낙소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 직책에서 물러났고, 같은 날 이인범(Riinhan, Yi In Pom)이 성낙소의 후임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상기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사곡선교회 아현기독교회, 경성부 아현정 57번지(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동경사곡선교회 경성기독교회, 경성부 적선정 190번지(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동경사곡선교회 인천기독교회, 인천부 송현리 89번지(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89 Shokenri, Jinsen)

신실함으로,

학무국 국장(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올림

환원협의회(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는 1936년 9월 24일자 J. 마이클 쉘리의 편지를 받고 10월 6일 다시 조선총독부로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국장님께,

부디 동봉한 글들을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영예로운 정부가 깊이 배려해 주셔서 제게 귀하의 직원이 조사한 사실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조사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귀하께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 President)

별첨1: J. 마이클 쉘리(Route 3, Eugene, Ore)가 1936년 9월 24일 리온 L. 마이어즈에게 보낸 편지.

친애하는 마이어즈 형제님께,

<환원전령> 9월호 12쪽 서신을 읽고 형제님께 몇 줄 적어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호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신뢰 속에서 형제님이 받아보시게 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비판하러기보다는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쪽 서신 마무리 부분에서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추가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스스로 설명합니다. 또 우리는 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바라는 분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어즈 형제님, 저는 이 편지가 진정 스스로 설명하는지, 심지어 형제님에게조차, 궁금합니다.

도미나가(Tominaga) 씨의 편지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현재 세 개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또 그는 그 세 개의 교회들의 주소들을 제시합니다. 한 곳은 진센(Jinsen)으로써 일본어로 제물포를 뜻합니다. 다른 두 곳은 게이조(Keijo)로써 일본어로 서울을 뜻합니다. 형제님은 이들 교회들이 제가 동봉해 드린 선서진술서(공증서) 복사본에서 다구치(H. Takeuchi)가 언급한 세 개의 교회들인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주소는 채전이고, 두 번째는 묘지이며, 세 번째는 진센(인천)의 상업중심지에 있는 번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주소지들에는 교회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형제님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도미나가 씨가 한국어로 하지 않고, 일본어 음역으로 적고 있지만, 그들 번지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부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이 한국에 교회들이 12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님은 성낙소가, 비록 몇 년간 요츠야선교회에 고용되지 못했지만, 1936년 1월 10일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 직책을 유지한 것을 주목하십니까?

형제님은 1932년 이전까지는, 이 편지에 따르면, 비록 그들이 1923?년에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역자 주: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지방대지진으로 인해서 한국선교가 1924년으로 지연됨)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에 대한 그 어떤 허가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제님은 이인범(Yi In Pom)이 I. P. Lee와 동일 인물인 것과 수년 전 성낙소가 해임된 이후로 줄곧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인 것을 아십니까? 형제님은, 비록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1936년 1월 10일에 승인되었지만, 도미나가의 회신 날짜인 1936년 7월 29일까지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에 실

린 열두 개의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곳도 조선총독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형제님은 이 사실이 요츠야선교회가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그들이 허가를 받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말입니다.

저로서는 한국에서 받아본 별도의 정보 때문에 상기한바와 같이 도미나가 씨의 회신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형제님도 아마 이것들을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만, 이 회신을 읽는 보통의 독자는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고, 받고 있었다는 정보와 세 개의 교회들이 그 허가에 의해서 보고되었다는 정보만을 입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비판도 부당했다는 판단을 할까 걱정됩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 가해진 한국의 선교 상황에 관한 진실이 유포되는 것을 가로막는 엄청난 압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커닝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제님과 수확할 일군을 기다리는 한국에 진실로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현재 채이스(Chase) 형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의 길에는 그 어떤 방해요소도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현장에 상주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형제님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중대한 시기에 채이스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형제님이라면 무엇인가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 요츠야선교회의 실행위원회가 그 사실에 직면한다면, 그들은 채이스 형제가 현재 펼치고 있는 모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이 그의 감독 아래에서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형제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형제님을 크게 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J. Michael Shelly

별첨2: 법정변호사 다게치의 공증서. 이 공증서는 1935년 10월 5일 쉘리 가족이 10월 28일 한국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

로 돌아가기 직전에 작성되었다. 웰리가 치밀하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정변호사 다케치(H. Takechi, 서울, 1935년 10월 5일)

이 글(공증서)은 조선에서의 요츠야선교회에 관한 다음의 진술들을 서울 총독부사무실에 보관된 기록들과 조선에서 이뤄지는 선교들을 관장하는 행정법(포교규칙)들과 더불어 점검한 것과 그것들이 세세한 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1. 총독부(학무국 사회과)의 허가없이 조선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들을 조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2.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상주해야한다.

3. 교회를 개척하는 자는 그 사실을 총독부에 보고해야 하고, 포교관리자가 승인해야 한다.

4. 설교자의 자격들, 이름, 교회주소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 목사들의 이동사항과 교회주소의 변경 등도 10일 이내에 총독부(학무과 사회과)에 보고해야한다.

5.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아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경찰은 강제로 교회를 폐쇄할 권한을 갖는다.

6. 성낙소가 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있는 동안, 총독부는 조선영토에서의 선교에 대해 또 다른 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7. 포교관리자는 모든 보고서에 날인하여야한다.

8. 성낙소(주소: 서울 송4동 4번지)는 1932년 6월 17일(역자 주: 실제로는 11일) 일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Yotsuya Mission, Church of Christ, Tokyo, Japan)의 포교관리자로 포교관리자계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는 조선선교를 위해 발행된 유일한 허가서를 지니고 있다.

9. 요츠야선교회의 허가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교회들이 성낙소에 의해서 포교소설치계가 보고되었다.

1) 1932년 12월 4일, 서울 용강면 아현리 57번지

2) 1932년 12월 7일, 서울 적선동 190번지

3) 1933년 2월 1일, 인천 송현리 89번지

10. 상기한 주소에 어떤 교회도 없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포교소소재지변경제도 없다. 본인이 직접 오늘 이들 세 곳의 장소들을 방문하였으나 아무 곳에서도 교회를 찾지 못하였다.

11.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쪽 두 번째 란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을 읽었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18개의 그

리스도인들의 그룹들(주일학교)과 12개의 교회들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 12개의 교회들은 불법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그중에 어느 곳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기한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날인과 도장을 찍어 증명함.

법정변호사 히로카타 다께치(Hirokata Takechi, Barrister at Law)
(인)

미국에서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보고들을 보면, 존 T. 채이스와 세 명의 미혼 여성들의 사역을 크게 훼손시켜온 W. D. 커닝햄이 이제는 우리들의 명성뿐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역까지도 훼손시키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본국의 형제들이, 만일 그분들이 사실에 접근한다면, 이 점을 목과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사실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저희 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으신 때로부터는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현금과 연락은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에 계시는 클레어 허치슨(Claire Hutchison)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2) W. D. 커닝햄의 채이스와 셸리와와의 분열 및 사망

채이스와 커닝햄과의 관계에 금이 간 원인은 경제대공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후원금 감소로 급여가 삭감되고 사역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닝햄이 빚지는 것을 몹시 꺼려하였고, 게다가 한국사역의 규모는 날로 늘어만 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은 1934년 8월에 불만을 토로하는 존 T. 채이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였고, 10월에 해임시켰으며, 결국 채이스 가족은 1934년 11월 2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채이스와 커닝햄 사이에 논쟁이 지속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하였고, 선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으로 섬겼던 J. 마이클 셸리 가족은 커닝햄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3월 20일경에 한국

에 도착하였다. 켈리 가족은 수일 후인 3월 24일 주일날에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는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요즈야선교회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이 때 김영배 전도자가 켈리의 통역을 도왔다.

J. 마이클 켈리는 서울도착 만 2달만인 5월 25일 미국에 편지를 보내 요즈야선교회가 한국에서 펼치는 선교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켈리가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주소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를 제출한 것은 한국 도착 한 달 만이고, 그로부터 또 다른 한 달 만에 요즈야선교회가 한국에서 펼치는 선교의 문제점들을 커닝햄과 미국에 알림으로써 켈리와 커닝햄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켈리 가족은 비교과 신약성서기독교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그들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J. 마이클 켈리와 가족은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1936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커닝햄의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서 커닝햄 부부는 1936년 3월에 호주에서 커닝햄의 SOS요청을 받아 동경 요즈야선교회 경력선교사로 부임한 히치와 함께 급히 한국의 선교지들을 방문하였고,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4월 24일 동경을 떠나 요코하마 항에서 배로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을 하던 중인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커닝햄 부부의 이 선교여행의 목적은 아마도 채이스와 켈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커닝햄이 동료인 채이스와 켈리 등과 갈등을 일으킨 것은 커닝햄이 이인범 목사를 지나치게 신뢰한 때문이었다. 이들 선교사들과의 분열이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았고, 1936년 1월

10일 그 결실을 보았다. 커닝햄 사후 요츠야선교회는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가족을 1938년 2월 18일 이후 서울에 상주시켰고, 등록교회가 3개뿐이던 것에서 히치 가족이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는 한국에 등록된 교회가 11개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히치 가족도 서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듬해인 1939년 8월에 호주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원균 목사가 목회했고, 또 요츠야선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던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소재의 기독교회는 그 흔적을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도 이 시기(1933-36년)가 포교관리자로 파송된 이인범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해임 당하였지만, 법적으로는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성낙소도 이인범도 방현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는 흔적은 찾지 못하였고, 조선총독부관보에 방현기독교회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김성산 목사(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만 남아 있다.

J. 마이클 쉘리가 리온 L. 마이어즈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쉘리가 범한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1)조선총독부가 회신한 세 개의 교회들의 주소는 성낙소 목사가 1932-33년 사이에 올린 포교소설치계에 따른 것이며, 자체 건물이 없이 임대장소 또는 주택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수시로 집회소를 옮겨 다녔고, 쉘리는 변호사의 공증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직원은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포교소설치계에 의거하여 회신하였고, 이인범은 33-35년 사이에 1936년 1월 10일까지 합법적인 포교관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포교계, 포교소설치계, 포교소소재지변경계 등을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란 점을 아마 고의로 간과하였을 것이다.

(2) 웰리나 커닝햄이 후원자들을 속이거나 기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웰리는 입국직후인 1935년 3월 24일 인천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고, 기념촬영까지 한 사실이 있다. 이때는 이미 성낙소가 보고한 송현기독교회의 주소지가 바뀐 뒤였다. 만일 웰리가 새로운 번지에 건축까지 마친 송현기독교회의 존재를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성낙소가 보고한 주소지에 대해서 고의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는 자신이 친히 방문한 송현기독교회를 성낙소가 보고한 교회와 동일하게 보지 않았거나 자신이 방문한 송현기독교회를 불법적인 교회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도 아니면 기만한 것이 된다.

성낙소는 세 개의 교회들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후 1933년 5월에 해임되었으므로 이 공증서가 작성된 1935년 10월 5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후임자인 이인범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공증서를 쓴 변호사 다께치도, 공증서를 요청한 웰리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웰리는, 심지어 채이스까지도, 이들 교회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웰리는 1935년 3월 24일 주일에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한 후에 단체사진까지 촬영하였고, 요츠야선교회의 일본주재 선교사로서 채이스는 1931년에 한국의 교회들을 시찰하였으며, 1936년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한 후에도 이들 교회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채이스의 경우 이들 교회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웰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웰리나 채이스의 부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은 주소만 바뀔 뿐이지,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월간지, <환원 전령>(Restoration Herald)의 편집

인 리온 마이어즈(Leon Myers)가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요즈야선교부의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는 요즈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사역이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1932년 6월 11일이후로 중단 없이 기독교 사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3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기사가 <환원 전령>지에 실렸다고 소개하였다. 이 정부 확인 교회숫자가 이듬해에 히치(T. G. Hitch) 가족이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교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에서는 11개로 재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인범 목사가 1936-37년 사이에 7개 교회를 추가로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이었다.

3)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기까지 W. D. 커닝햄이 겪었던 고충

이인범 목사는 요즈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6월 5일에 조선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9월에 입국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기까지 합법적으로 포교관리자 행세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1933년 5월 20일 요즈야선교회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 1월 10일까지 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낙소는 이인범으로부터 포교폐지를 당한 것은 1936년 9월이었다.

커닝햄은 1935년 웰리 선교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해야한다는 사전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 5월 20일 성낙소 목사를 해임한 후 1935년 전반기까지 만 2년간 포교관리자를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변경하려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데도 파악할 수 없다. 아무튼 커닝햄은 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포교관리자 변경계를 제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의 깔끄러운 변경조건들에 직면하였고, 가까운 이웃이었던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수차례 쓰는 등의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에 가서야 비로소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었다.

1935년 8월 28일 도요히코 와타나베(Toyohiko Watanabe)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커닝햄은 해군제독 사이토 자작의 소개장을 동봉하였다.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자작)는 조선총독부에 종교계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2회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냈으며, 사이토 부부는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허가한 인물이었다. 커닝햄은 이 편지에서 수년 전 성낙소를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후임자인 이인범을 포교관리자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커닝햄은 8월 28일자 편지에 답신을 받지 못하자, 1935년 9월 19일 도요히코 와타나베(Toyohiko Watanabe)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커닝햄은 이 편지에서 조선 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로 성낙소 대신에 이인범을 등록시켜달라며 사이토 전 총독의 소개장을 동봉하였는데, 답신을 받지 못하였으니, 포교관리자변경계의 건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1935년 9월 25일 기안하고 27일 결재를 받은 후 28일 학무국장명의로 공문서(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의 건)를 W. D. 커닝햄에게 발송하였다. 이 공문을 받고 크게 실망한 커닝햄은 1935년 10월 11일 전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어제 만나 뵈도록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각하께 와타나베 씨가 보낸 공문을 건네 드리면서 제가 꼭 설명했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웰리 씨는 요츠야선교회와 그 어떤 관계도 결코 가졌던 적도 가질 수도 없습니

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셸리 씨는 배후에 그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독립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지” 않았습니니다.

저 혼자에게만 사역자들과 25개의 교회들의 사역과 64개의 일요 학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셸리 씨는 교회들도 없고, 일요 학교들도 없으며,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도 없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저와 셸리 씨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여 누가 포교관리자가 될지를 결정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또 그 문제를 타협해서 누가 저의 집에서 살지를 결정하라고 제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이인범을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하려면 성낙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성낙소를 무능하기 때문에 해고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셸리 씨와 마찬가지로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그는 이인범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성낙소 씨를 임명하였는데, 제게 그를 해고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와타나베 씨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분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각하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35년 11월 16일 커닝햄은 사이토 자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또 썼다.

와타나베(Watanabe) 씨가 이인범을 조선 포교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셸리 씨는 우리가 임명한 한국 포교관리자도 아니고, 결코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이고, 우리가 불성실함 때문에 해고한 성낙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셸리 씨와 그의 가족은 10월 28일 배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 취해야할 일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회신을 위한 우표를 동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닝햄은 1935년 12월 10일에 학무국이 발송한 1935년 12월 5일자 공문을 받았는데, 성낙소에게 보낸 해임명령서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커닝햄은 11일 조

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어제 저는 성낙소 씨를 해임한다고 통보한 나의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12월 5일자 귀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제게는 그 편지의 복사본이 없습니다.

저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고 성씨의 후임자로 이인범이 임명되었으니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해군제독 사이토 자작님을 뵈었습니다. 사이토 자작님은 제게 한국에서의 사역을 최초로 허가하신 분이십니다. 사이토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성씨를 해임한 편지의 복사본이 없다는 것을 귀하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12월 11일자 자신의 편지가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1935년 12월 24일 학무국장에게 등기로 편지를 보냈다. 커닝햄은 등기편지에서 12월 11일자 자신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학무국장의 친절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후 12월 11일자 편지내용을 설명하였고, 복사본을 동봉하였다. 그러면서 “성낙소는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되도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936년도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 적었다.

커닝햄은 1936년에 가서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접수받겠다는 공문을 학무국으로부터 받고나서 1936년 1월 21일에도 총독부에 감사편지를 썼고, 이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자 2월 11일에 다시 편지를 보냈다. 학무국에서 2월 21일 기안하여 2월 27일 발송한 공문을 받고 학무국에서 요청한 내용을 이인범에게 편지를 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인천에 거주하는 이인범이 조선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되었는지를 물었다. 커닝햄 부부는 1936년 3월 중에 한국교회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방

문을 끝내고 동경에 돌아온 후에 보낸 편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1936년 3월 24일자에 기안하여 26일자에 결재를 마치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3월 18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공문을 커닝햄에게 발송하였다. 커닝햄부부는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 중이던 그해 6월 24일 별세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처리해주려는 뜻이 있었는지, 시내 송4동 4번지 주소로 성낙소에게 1935년 12월 24일자 소인, 23일 결재된 통지서를 보내 12월 26일 정오에 인장 지참하여 사회과 종교계에 출두하라고 통보하였다. 통지서가 반송되었던지, 이번에는 1936년 1월 7일자 소인이 찍힌 통지서를 경성부 옥천동 11번지로 성낙소에게 보냈다. 요지는 포교관리자의 건으로 면담을 요청하니, 1월 10일 정오에 인장 지참하여 사회과 종교계에 출두하라는 것이었다. 추정컨대 이 날 성낙소와 이인범 두 목사가 모두 학무국 사회과에 출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사직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성낙소 목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구하였다. 다만 훗날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에서 이인범이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한 것에 <조선총독부관보 제 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대해서 그의 사육 때문이었다고 불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1월 10일에 작성된 포교관리자변경계, 포교관리자 및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를 접수받았다. 서류에는 이 날짜에 맞춰 작성된 커닝햄의 사령서, 곧 이인범을 성낙소 대신 포교관리자로 임명한다는 편지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커닝햄 선교사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규칙 제6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조회를 거쳐 승인이 떨어져 그 사실이 3월 18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W. D. 커닝햄이 1935년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들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5년 3월 20일경에 서울에 입경한 J. 마이클 쉘리는 24일 주일날에 송현기독교교회(담임목사 이인범)를 김영배의 통역도움을 받아 방문하였다. 이때 송현기독교교회는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전기시설을 갖춘 예배당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인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와 포교소설치계를 동시에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이때 성낙소는 담임목사를 성낙소로, 소재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송현기독교교회는 1936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기<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전까지는 이인범이 포교담임자변경계와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포교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둘째,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1935년 10월 11일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한 달 후인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낙소가 무능했다거나 불성실했다는 말은 믿기지 않는 말이다. 성낙소 목사는 포교관리자를 맡았던 20개월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던 서울 제1교회를 송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월 14일)하였고, 조선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등록(1932년 6월 11일 승인)시킴으로써 비로소 포교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트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사무소위치를 송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또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옮겼다.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잦았던 것이다. 성낙소는 김문화 목사를 포섭하여 1932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포교규칙에 따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이뿐 아니라, 성낙소 목사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성낙소는 경기도 경성부의 경성교회와 아현교회 뿐 아니라, 인천부의 송현기독교회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함으로써 포교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

을 펼쳤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북 구성군 방현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엄격히 말하면, 1933년 5월까지의 이들 세 개의 교회뿐이었으므로 커닝햄이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친 선교의 열매는 이 세 개가 전부였고, 성낙소 목사가 커닝햄에게 고용된 20개월 기간에 얻은 결실이었다. 반면에 이인범은 그의 화려한 선교보고에도 불구하고, 신고 된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신고 되지 아니한 방현기독교회를 제외하고는 자체 건물을 가졌거나 제대로 된 교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낙소가 불성실했거나 무능했다는 말은 성낙소 목사를 두 번 죽이는 행위였다.

셋째, 커닝햄은 성낙소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 성낙소를 동경에 초청한 것이 커닝햄이었지만, 성낙소가 일본에 건너간 직후 커닝햄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커닝햄이 동경에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성낙소는 사모의 병환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낙소는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기독교회’(基督之教會)를 개척하였는데, 이 교회출신 재일유학생에 의해 커닝햄에게 소개되었다. 성낙소는 커닝햄의 초빙을 받아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갔고, 흥빈조선기독교회를 1931년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그리고 성낙소는 1931년 9월 하순에 요즈야선교회 조선 포교관리자로 안수를 받고 귀국하여 장로교출신 박홍순 목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커닝햄은 성낙소가 일본에 머문 대부분의 시간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성낙소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커닝햄은 1927년 8-9월경부터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선교기지들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된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인범을 커닝햄은 절대적으로 신임하였다. <도교 그리스도인> 1932년 8월호와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커닝햄은 이인범을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한국에 단기선교를 보냈는데, 이 기간에 이인범이

거둔 놀라운 성과에 고무된 요츠야선교회는 심천조선기독교회의 담임자 이인범을 새로운 포교관리자로 한국에 파송할 목적으로 성낙소를 해임하였다. 정확한 해임날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커닝햄은 1935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에 보낸 편지에서 해임날짜가 1933년 5월 20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요츠야선교회는 1933년 6월 5일 월례회에서 이인범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조선 포교관리자)로 파송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인범은 섬기던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조력자였던 채호(Ho Cheh)에게 맡기고 동년 9월에 한국으로 건너갔다.

넷째, 이인범이 성낙소의 포교관리자 직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닝햄도 원했고, 이인범도 원했고, 송현기독교회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인범은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러던 참에 커닝햄이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이인범을 한국에 단기선교사로 보냈고, 이 기간에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서울 창동교회가 부흥강사 자질이 많은 이인범 목사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이인범은 성낙소를 창동교회에 심으려함으로써 인천부 송현기독교회를 염두에 뒀으며, 한국교회들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커닝햄에게 보냈다. 크게 신임했던 이인범의 선교보고에 고무된 커닝햄은 5월 20일 성낙소를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이인범을 6월 5일 선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낙소 목사가 해임당한 것은 커닝햄이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성실”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성낙소가 포교계와 포교소로 등록시킨 송현기독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한 이인범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던 송현기독교회에 부임하기를 원했던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성낙소 목사는, 비록 커닝햄으로부터 해임을 당하기

는 했지만, 합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인범이 자신의 포교계와 포교자선임계 및 포교소소재 지변경제도 없이 불법적으로 송현기독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여 활동한 것과 송현기독교회가 주소지를 옮겨 건축한 것 등을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범의 선교활동을 훼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현기독교회는 성낙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등록시킨 교회였다. 대신에 이인범은 커닝햄이 파송한 조선 포교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낙소가 시무한 적선동 경성교회나 김문화가 시무한 아현동 교회에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다. 1936년 1월 10일 그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후인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할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렇다고 이때까지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가 동일 장소에서 목회를 지속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일본인 변호사 다케치가 1935년 10월 5일에 그들의 교회주소를 찾아갔지만, 동일번지에 교회들이 없었고, 송현기독교회가 건물을 짓고 이전하여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낙소가 제출한 최초의 포교소소재지 89번지를 찾아간 후에 동일 장소에 교회가 없다는 공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 역시 포교소소재지 변경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여섯째, 이인범에 의해서 포교계가 폐지된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는 자신들의 포교계를 총독부에 제출해줄 교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을 두었을 수 있고, 1938년 3월 31일 조선야소교회는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

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5면(소화 15년 7월 8일)>. 그러나 성낙소 목사는 다행히도 1937년 4월에 김문화 목사의 전갈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고, 채이스가 갓 시작한 서울성서훈련원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와 <그리스도인 표준> 1939년 3월 18일자 및 6월 17일자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되었다. 실제로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10면(소화 14년 6월 23일)>. 그러므로 성낙소 목사가 조선야소교회에 잠시 적을 두게 된 이유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곱째, W. D. 커닝햄이 1935년 10월 11일 전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셸리 씨는 요츠야선교회와 그 어떤 관계도 결코 가졌던 적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셸리 씨는 배후에 그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독립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에게만 사역자들과 25개의 교회들의 사역과 64개의 일요학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셸리 씨는 교회들도 없고, 일요학교들도 없으며,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도 없습니다.”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보였다. J. 마이클 셸리 선교사는 요츠야선교회의 정기후원자였고, 실행위원회 위원까지 지낸 목회자였기 때문이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며, 1935년 3월 20일경에 입경하여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

목 115번지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 이때 쉘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가 성낙소로 남아있는 것과 이인범이 포교계 제출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커닝햄에게 통보하였으나 오해만 받자 미국 교회들에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커닝햄은 적극적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내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커닝햄이 적대자라고 말했던 쉘리의 방해와 성낙소의 비협조가 한몫을 하였다.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 제출이 1933년 9월에 부임한지 2년 3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전 조선총독 사이트의 도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36년 1월 10일에 해결된 이유였다. 쉘리는 1935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수일 전까지 요즈야선교회의 불법성을 파헤칠만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덟째, 이인범이 포교계 제출도 없이 포교활동을 한 것은 불법이었다. 성낙소가 신고한 3개 교회이후 해임당한 후 1936년 1월 10일까지 이인범이 활동하여 세운 교회들은 모두 무신교 불법교회들이었다. 쉘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점이였다. 이인범이 포교규칙을 몰랐거나 성낙소가 반대하여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커닝햄이 1934년 3월 28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보낸 편지내용으로 볼 때, 이인범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성낙소의 반대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그 같은 사실에 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학무국에서 커닝햄에게 성낙소가 포교관리자인가를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커닝햄과 이인범이 포교관리자변경계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쉘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부터였다.

아홉째, 이인범이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커닝햄의 노력과 전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인범은 이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구 포교관리자 성낙소(경성부 수창동 106번지)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17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와 포교관리자사무소를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1면(소화 11년 3월 18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번지의 이인범(명치 29년 9월 25일생)을 본 선교회 조선지방 포교관리자로 전임자 성낙소를 대신하여 임명함”이라고 쓴 사령서와 성낙소 목사가 도장을 찍은 포교관리자사직계가 첨부되었다. 이인범이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는, 1936년(소화 11년) 3월 26일자 결재 서류에 따르면, 소화 11년 3월 24일 학무국 사회과에서 기안하여 25일 학무국장과 사회과장 및 주임의 결재가 떨어졌다. 3월 10일까지 조회마치고 18일 관보에 게재토록 하였다.

열째, W. D. 커닝햄은 조선 포교관리자가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변경되도록 하려고 1935년 후반기를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고, 해군제독, 조선총독부 총독 2회, 일본수상을 역임한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거의 떼쓰는 수준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35년이 커닝햄에게 매우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불운한 해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파면시켰던 존 T. 채이스가 본토에서 펼친 공격도 부족해서 다년간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했고, 실행위원까지 역임했으며 자신이 모집하여 한국선교사로 보낸 J. 마이클 웰리의 공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츠야선교회에서 사역하였던 3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채이스의 파면에 항의하여 요츠야선교회를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포교관리자직책에서 성낙소를 해임하고 이인범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성낙소뿐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조차 그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사단의 발생은 부

분적으로 커닝햄이 이인범을 지나치게 신뢰한데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수습을 위해서 커닝햄 부부는 호주에서 급히 초빙한 경력선교사 히치와 함께 1936년 3월에 한국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 중이던 그해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3.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1933.9-1936.6)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커닝햄 선교사는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이 허가하였으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커닝햄은 일본에 상주하는 선교사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츠야선교회가 파견한 한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만 8년간이나 포교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요코하마)에서 돌아와 포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의 8년의 결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신고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기독교회에는 총 3개의 교회만이 존재하였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

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참고로 이 무렵 천주공교 327개, 조선야소교장로회 2583개, 기독교조선감리회 814개, 성공회 87개, 로국정교회 6개, 일본기독교회 12개, 일본메소제스트교회 7개, 제7일안식일야소재림교 129개, 동양선교회 149개, 구세군 74개, 조선기독교회 27개, 동양선교회호리네스교회 7개, 조선회중기독교회 26개, 기독교동신회 2개였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9월에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하여 성낙소를 대신하여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그의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인범 역시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1935년 5월에 J. 마이클 쉘리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으며, 그것도 커닝햄과 전 조선총독 사이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인범 목사는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포교규칙 제6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리사무소소재지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동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후 이인범은 7년 8개월간(지지자였던 커닝햄 사후 7년 3개월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소화 18년 10월 26일)>, 13일이 지난 30일에는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을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우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소화 18년 11월 8일)>. 이들 자료들로 비춰볼 때 이인범은 1943년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는 장로교회로 이적하였고,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51년에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1936.7-1943.9)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후 동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와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와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소화 11년 10월 16일)>. 또한 이인범은 같은 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도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같은 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57번지를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4,6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 아현정 473번지의 교회가 서울제1교회(경성교회)의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이곳에 1938년 서울성서훈련원을 개교시켰다가 가까운 곳의 건물 2층을 세내어 이전하였다.

1936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명칭 변경계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송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그리고 5일 후인 1936년 12월 2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를 신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6면(소화 12년 2월 9일)>. 이로써 이인범 목사는 1936년 말까지 성낙소 목사의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성낙소의 흔적지우기를 완료하였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는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따라서 커닝햄이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이던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

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그리스도인>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된 교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7개 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한 곳(아현정기독교교회)만 남았고,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 제2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5월호)> 1936년 말까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요즈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인 아현정기독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경성교회로서 계동에서 시작되어 송4동, 수창동, 적선동으로 옮겨 다녔고, 아현정 473번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잡았다. 평북에서는 근담동과 대류리에 세워진 포교소들의 소식이 끊어진 대신에 구성군에서 평지동기독교회와 정주군에서 약수포기독교회와 문인동기독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평지동기독교회와 약수포기독교회가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된바가 없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오봉기독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10면(소화 12년 6월 2일)>. 또 동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면(소화 12년 6월 2

일)>. 이를 후인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과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과 문인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정삼선(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를 뒤인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그리고 동년 10월 3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 및 포교소명칭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소화 12년 12월 16일)>.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소화 12년 4월 10일)>, 동년동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25일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와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

염리기독교교회에 이난기, 마장기독교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이인범은 1939년 1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교회(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제10조에 의거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소화 14년 3월 16일)>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소화 15년 8월 27일)>. 또 동년 3월 1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에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소화 15년 3월 30일)>. 또 이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67호 6면(소화 15년 4월 13일)>. 수일 후인 3월 1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소화 15년 7월 2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교회에 송기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58호 15면(소화 15년 7월 31일)>. 그리고 1940년 8월 19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흥정기독교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흥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7호 3면(소화 15년 9월 3일)>.

이인범은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회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9조에 의거 현천기독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20호 2면(소화 17년 2월 23일)>.

그리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소화 18년 10월 26일)>. 그리고 신포교관리자인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이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 목사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4년 9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9번지)의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3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구포교담임자 이난기를 신포교담임자 유지옥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3호 2면(소화 19년 12월 7일)> 및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에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5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소화 19년 12월 9일)>.

4.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타 교단 출신)

1) 박제곤(동경 유학생)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제1교회를 출석하던 중 한국에 서울 포교소(선교기지)를 물색해달라는 커닝햄의 부탁을 받고 커닝햄 부부의 입정보다 일주일 빠른 1924년 3월 18일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7월호에 따르면, 요츠야선교회는 1924년 5월에 박제곤을 한국에 보내 선교기지를 개척토록 하였으나 부친이 박제곤의 복음사역을 반대함으로써 사역을 포기하였다.

2) 이원균 목사

이원균은 박제곤 대신 요츠야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서울포교소에 부임하여 1924년 10월부터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하기 위해서 사임한 1927년 초까지 사역하였다.

이원균은 1927년 기간에 동양선교회 김천성결교회(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남산정 34의 8번지)에서 목회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27년 11월 3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구포교담임자 이원균을 이정순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8호 9면(소화 3년 1월 12일)>. 그리고 1928년 5월 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 이원균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5호 4면(소화 3년 7월 5일)>.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2월호에 이원균이 신학을 마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가 경제적인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927년 말에 김천성결교회를 사임한 것으로 보아 1928년에 경성성서학원에 복학(또는 입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균은 1933년경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파송되어 1937년 중반에 자녀교육문제로 사임하고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에 부임하였다.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성낙소 목사도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이인범 목사도 이원균의 포교계나 포교소담임자선정계 등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계출하지 않았다.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과 정주군에서 펼친 왕성한 목회활동이 불법적이었던 셈인데, 그렇다고 무슨 법적 제재나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커닝햄으로서는 그가 이런 업적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였다.

3) 김광춘 목사

이원균을 대신하여 1927년 중반부터 29년 3월까지 서울 포교소를 맡아 사역하였다.

4) 박홍순 목사

한국장로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제5교회를 출석하던 동생 박경순이 개척한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를 맡아 1927년부터 1929년 초까지 섬겼다. 박경순이 미국에 유학을 떠나면서 형인 박홍순을 요츠야선교회에 추천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9년 11월호에 따르면, 박홍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김광춘의 뒤를 이어 서울포교소에서 사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0년 4월 27일 서울포교소를 요츠야선교회 서울 제1교회로 승격시켰다. 이 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부임한 1931년에 계동에 있었다.

5) 이성록

1930년 4월부터 서울에 투입되어 31년 무렵까지 박홍순 목사와 함께 선교기지들에서 사역하였다.

6) 이동혁

1930년 4월부터 서울에 투입되어 31년 무렵까지 박홍순 목사와 함께 선교기지들에서 사역하였다.

7)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1931년

9월에 귀국하여 박흥순 목사의 뒤를 이어받았다.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서 1933년 5월 20일 해임될 때까지 20개월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서울 제1교회를 계동에서 송4동의 이층 목조건물로 옮겼다. 이곳에 1932년 3월 14일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하였고,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부터 조선선교를 시작하였지만, 1932년 6월 11일까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생각해 내거나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만 8년간의 이들 초기사역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그간의 사역은, 비록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승낙이 있었을지라도, 모두 불법이었던 셈이다.

성낙소 목사는 이 기간에 3개 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에 해임된 이후로도 1936년 1월 10일까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였기 때문에 요츠야선교회가 새로 선임하여 파송한 이인범 목사는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한 1933년 9월부터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1936년 1월 10일까지 조선총독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포교관리자 직책을 수행한 셈이었다.

이인범 목사는 1936년 9월 4일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성낙소 목사(내수정기독교회)는 1937년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8) 김문화 목사

장로교회 출신의 김문화 목사는 김동렬 목사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다. 성낙소 목사는 1932년 12월 2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7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 목사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이인범 목사는 1936년 9월 4일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김문화 목사는 1937년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9) 이인범 목사

이인범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6월 5일 조선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9월에 입국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그가 원하는 대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될 수 있었다. 이후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여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신분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이후에는 요츠야선교회가 후원을 끊고 한국선교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10) 김영배 목사

김영배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성낙소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5월호에서였다. 1935년 3월 24일에는 이인범이 시무한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일예배 때 J. 마이클 쉘리 가족의 통역을 맡았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12월호에 따르면, 김영배는 동경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1938년 사역자들의 소개에서는 김영배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선교사 쉘리는 김영배가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였고, <도쿄 그리스도인>은 그가 월 100엔의 급여를 받는 교사직을 포기하고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배는 자신이 개척한 유동기독교회에 1936년 6월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고, 이인범은 9월 4일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소화 11년 10월 1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10월 3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바꾸는 포교소소재지변경계와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바꾸는 포교소명칭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소화 12년 12월 16일)>.

11) 신신근 목사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자 이인범 목사는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목사 신신근에게 맡기고, 본인은 서울 제1교회, 곧 경성기독교회의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옮겨 줄곧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신신근 목사는 1936년 중반 경에 송현기독교회에 부임하여 1946년 12월 2일 소천 때까지 담임목사로 섬겼다. 신신근 목사 사후 즉시로 송현기독교회는 현 인천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동양선교회는 1933년 1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광주성결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881호 8면(소화 8년 4월 19일)>, 2월 10일에는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광주성결교회 구포교담임자 김정호(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를 신포교담임자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6호 5면(소화 8년 3월 18일)>.

동양선교회는 1936년 6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 51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859호 6면(소화 11년 7월 24일)>, 수개월 후 이인범은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면(소화 11년 10월 16일)>.

12) 장신주 목사

장신주는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의 제2대 담임목사였다. 오봉기독교회는 방현기독교회(이원군 목사)의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도교 그리스도인(1933년 10월호)>, 1933년 부지매입, 1934년 건축<도교 그리스도인(1934년 6월호)>, 1935년 4월 추가 부지확보가 이뤄진 교회였다<도교 그리스도인(1935년 6월호 및 11월호)>. 그러나 이인범은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의 포교계와 오봉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1937년 5월 10일에 가서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소화 12년 6월 2일)>.

13) 최성진 장로

최성진(崔成珍) 장로는 평북 정주군 문인동기독교회를 담임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출생년도가 1875년, 주소가 방현기독교회가 소재했던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현 구성군 남창리)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에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나 전달되지 못하여 ‘독립유공포상자 중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문인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

일)>.

14) 김성산 목사

이원균 목사가 자녀교육 때문에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1월호)>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방현(호젠)기독교회의 제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6월호)>. 이인범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1937년 5월 10일에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소화 12년 6월 2일)>. 방현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 수는 없지만, 방현기독교회에는 유치원과 사택까지 갖춘 교회였으므로 김성산 목사의 주소지,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에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주정국 목사

주정국 목사는 이인범의 신학동기로서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을 당시 49살이었다. 부인과 외아들을 두었고, 20년의 목회경험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5월호에 따르면, 주정국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1937년 어느 시점에 평북 신의주기독교회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되나 김성산 목사가 방현기독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12월호)> 1938년에 주정국 목사가 방현기독교회의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8년 4월호)>.

16) 이용섭 목사

평북 구성군 평지동기독교회의 담임이었다.

17) 류(W. K. Ryu) 목사

평북 정주군 고현면(혹은 고안면) 용포동에 세워진 용포동기

독교회를 섬겼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18) 김명철

평북 신의주기독교회를 잠시 이끌었다<도쿄 그리스도인(1938년 11월호)>

19) 이난기 목사

이난기 목사는 협성신학교(감리교)를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11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고,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해방 후인 1948년경에 이난기 목사(용산기독교회)는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20) 윤낙영 목사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혹석정 37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해방 후인 1948년경에 윤낙영 목사(아현동기독교회)는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21) 김태희 목사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소화 12년 4월 10일)>. 그리고 1939년 1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제10조에 의거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소화 14년 3월 16일)>

22) 송기준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소화 15년 8월 27일)>. 1940년 3월 15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소화 15년 7월 2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에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58호 15면(소화 15년 7월 31일)>.

5.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서울성서훈련원 출신)

1) 홍종숙 목사

홍종숙牧사는 1939년에 서울성서훈련원에 교수 겸 직원으로 영입되었다. 그는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공부한 남감리교회 출신의 목사 김요한의 친구였다. 홍종숙은 김요한을 찾아가 신앙 상담한 후에 남감리교회의 교인이 된 자로서 1911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네 곳에서 25년간 목회한 경력자였다. 홍종숙 목사는 서울성서훈련원에 영입되기 이전에 이미 1936년 말에 체이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김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상태였다.

2) 김상의 전도사

김상의 전도사는 1938년에 토마스 G. 히치 선교사 가족과 이인범 목사에게 의해서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의 신학생이었으며, 1940년에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의(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1938년 8월 25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계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의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3) 임공철 전도사

임공철은 서울성서훈련원에 재학 중이던 1939년 8월에 자신의 집에서 서울 제1교회의 제8주일학교를 개척하였고, 1940년에 이인범, 이난기, 윤낙영, 김상의에 이어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서울 제5교회로 발전시켰다<그리스도인 표준(1939년 11월 25일호)>. 이인범 목사가 1940년 8월 19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홍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홍

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조선총독부관보 제 4087호 3면(소화 15년 9월 3일)>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임공철이 개척한 교회는 서울 대흥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정삼선 전도사

정삼선 전도사는 서울 제1교회의 집사 출신으로서 전기사업차 인천에 내려가 있는 동안 송현기독교회를 창립하여 1934년에 교회의 힘만으로 전기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정삼선은 금곡정에도 기독교회를 개척하여 1936년 5월에 부임하였다.

정삼선은 1938년에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46마일(약 74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석하여 1940년에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정삼선(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틀 뒤인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5) 임준식 전도사

임준식은 서울성경훈련원 학생이었다. 이인범은 1940년 3월 1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 3967호 6면(소화 15년 4월 1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대화기독교회에 임준식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소화 15년 3월 30일)>. 임준식 전도사는 인천 제4교회의 개척자였다.

6) 임화순 여전도사

임화순은 서울 제1교회(아현정) 여전도사였다.

7) 이권신 여전도사

이권신은 서울 제4교회(영등포) 여전도사였다.

8) 평화일 여전도사

평화일은 서울성서훈련원에 재학 중에 서울 제5교회(대흥정)에서 여전도사로 섬겼다.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2)<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3)<교과명변경계(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사회교육,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31)

(4)'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5)'종교 교세 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6)'종교 교세 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아래의 사진들은 원본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써 총 48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상기명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7

朝鮮總督府
11.1

李福光

學務局長

社會課長

官報

主任

完
種

出 年 月 日	出 年 月 日	出 年 月 日	出 年 月 日	出 年 月 日	出 年 月 日
一月十日	昭和十一年	東宮皇尊	成樂	紀	本寅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布政管理者變更屆
提出シタル者	提出シタル者	提出シタル者	提出シタル者	提出シタル者	提出シタル者
如	如	如	如	如	如
氏名	氏名	氏名	氏名	氏名	氏名

官報掲載案

記帳本帳合済

布政規則第六條之依

1315

491

3/4/3/2

月 羊 恩 著 哥



布教管理署及布教管理事務所
位置變更屆

今般都合ニ依リ當派布教管理者成樂組
辭任ニ付後任者及布教管理事務所、位置
左記ノ通變更致候間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仁川府松峴里八十五ノ十七号

李寅範 (印)

朝鮮總督 殿

昭和十一年二月十七日
京誠通



1316

412

二月十日

記

一、宗教及其、教派、名稱

基督教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二、舊布教管理者、氏名

成 樂 紹

三、新布教管理者、氏名

李 寅 八 乾

四、舊布教管理事務所、位置

京城市需昌洞一、六番地

五、新布教管理事務所、位置

仁川府松峴里五、番地

以 上

宣統(年)開辦

1317



學校長

社會課長

事務官

注

官報掲載集

記載不校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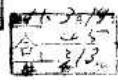
● 布教管理事務所之在地變更屆
 布教規則第六條之依り





布教管理事務所之在地變更屆、提出シタル者左、如シ

層	出	舊管理事務所之在地	新管理事務所之在地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故宗永名稱	本縣道京成所南一六	本縣道行所松尾五
	東京四谷區教會米普教會		

493

1318



布教管理者及布教管理事務所 位置變更屆	
今般都合ニ依リ當派布教管理者成樂錫律士ニ 付後任者及布教管理事務所、位置並記ノニ 變更改條聞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仁川府松峴里今五十七番地	1319
李黃範	44
朝鮮總督 敎	
記	
一 宗敎及共敎派、名稱	
基督教 東萊邑各堂教會基督教會	
二 舊布教管理者、姓名	
成樂錫	
三 新布教管理者、姓名	
李黃範	
四 舊布教管理事務所、位置	
東萊府松峴里一。六番地	
五 新布教管理事務所、位置	
仁川府松峴里五。番地	

履歷書

原籍 黃海道北山郡雲中面柳村里
現住所 仁川府松峴里八十五番地ノ十七号

李 漢 範

明治十九年九月十五日生

大正八年三月東洋宣教會ノ神學院ヲ卒業ス

同 四月ヨリ同十三年十二月まで聖潔教會傳道師視務ス

同 十五年九月ヨリ昭和八年九月まで東京市深川區朝鮮基督

教會牧師ノ視務ス

昭和八年九月 朝鮮仁川府松峴里基督教牧師ニ赴任ス

當頃回割 共ニ無シ

右之通相違無之候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李 漢 範

46

1320

寫

辭令書

京畿道仁川府松峴里八十五番地

李 寅 範

明治三十九年九月二十五日生

右者本宣教會朝鮮地方ニ於ケル布教監督
理者トシテ前任者成樂紹ノ代リニ任命ス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東京市四谷宣教會代表者

ダブリネ、デー、カンニングハム 署名

朝鮮總督

殿

496

1321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MMINGHAM, DIRECTOR

TOKYO, JAPAN, Jan 10 1936

Chosen Sotokufu, Seoul,

Dear Sir, I hereby appoint
Lee Su Pom of 90 Sogunri, Pindou as
leader of our work in Korea instead of
Mr. Aubrey Rok do.

Respectfully yours,

W. D. Cummingham,

1322

47

布教管理者辭職屆

私儀

今般都合_ニ依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朝鮮布教
管理者ヲ辭職致候_ニ付此段及御屆候也

西曆一九〇一年一月一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朝鮮布教管理會

成樂

紹

朝鮮總督

殿

1323

468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March 10, 1936 193

Chosen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Immediately upon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February 27, I wrote Mr. I. P. Lee in Jinsen to report to you through Jinsen Shicho, as requested. I trust he has done this. Was his report satisfactory?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 IS

W. D. Cunningham

57

1328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Feb. 11, 1936 193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I have no reply to my letter to
you dated January 21.

Were the papers presented to you
by Mr. I. P. Lee of Jinsen satisfactory?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 ES

W.D. Cunningham

by 1332

A14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Jan. 21, 1936 183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Today I received your favor granting permission to transfer leadership of our work in Korea from Mr. Sung Rok So to Lee In Pom.

I am forwarding the form you sent to Mr. Lee for him to fill out and present to you. I thank you.

Respectfully yours,

W. D. Cunningham

WBC: DAK

1345



布教管理者辭職届

私儀

今般都合ニ依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朝鮮布教
管理者ヲ辭職致候ニ付此段及御届候也

朝鮮總督 丁酉年 月 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朝鮮布教管理者 成樂 紹

朝鮮總督

殿

1353

h

布教管理者ニ関スル件
 首題ノ件ニ関シ面談致シ
 夕キ儀有之候ニ付末ル十二月
 二十六日正午迄^{御座候事}當所^{社會課}
 宗教係へ出頭相成度候也

1357

宛名 清内生四洞四
 成樂組宛
 署名 永野
 管理者ニ関スル件
 十一月廿五日
 主
 社會課長
 事務局長 幸
 1358

13

要旨
 布教管理者ノ件
 二関シ面談ノ要アリ
 乙付十二月二十六日正午
 送付額ノ下
 布教管理會事務局
 1359

府内玉川洞一
 成樂組
 布教管理會事務局
 11.17
 1360

市川島信田一三人ノ代
 洪錫護先生
 1362
 聖火社
 京成廣雲洞一七
 株番京成三三七番
 宋台用

孝節新年
 市川島信田一三人ノ代
 成樂組
 136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Dec. 11, 1935 193

Chosen Sotokufu,
Keijo, Chosen.

Dear Sir:

Yesterday I received yours of Dec. asking for copy of my letter dismissing Mr. Sung Rok So. Am sorry I have no copy of that letter.

I dismissed Mr. Sung May 20, 1935 and asked your office to permit Mr. Lee In Pom to be appointed instead of Mr. Sung.

Today I saw Admiral Viscount Saito who gave me the original permit to work in Korea. Mr. Saito told me if I would explain to you that I have no copy of the letter dismissing Mr. Sung he believed it would be "all right."

What further can I do in the matter?

Respectfully yours,

WDC:SY

W.D. Cunningham

1368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Dec. 11, 1935 193

Chosen Sotokufu,
Keijo, Chosen.

COPY

Dear Sir:

Yesterday I received yours of Dec. 5 asking for copy of my letter dismissing Mr. Sung Rok So. Am sorry I have no copy of that letter.

I dismissed Mr. Sung May 20, 1935, and asked your office to permit Mr. Lee In Pom to be appointed instead of Mr. Sung.

Today I saw Admiral Viscount Saito who gave me the original permit to work in Korea. Mr. Saito told me if I would explain to you that I have no copy of the letter dismissing Mr. Sung he believed it would be "all right."

What further can I do in the matter?

Respectfully yours,

WDC:SV

b7

137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O.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Dec. 24, 1935 193

Chief of Education Bureau,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Keijo, Chosen.

Dear Sir:

I have your favor of Dec. 21 which indicates that mine of Dec. 11 failed to reach you. I enclose copy of that letter. It explains that I dismissed Mr. Sung Rok So May 20, 1933 and wrote you to that effect and asked that you approve the appointment of Mr. Lee In Pom instead of Mr. Sung. I have no copy of the letter dismissing Mr. Sung and of course cannot send you a copy.

Mr. Sung is angry over his dismissal and will not resign unless forced to do so.

I am anxious to have this matter settled soon as possible, for my plans for 1936 cannot be made until this is settled.

What more can I do?

Sincerely yours,

WOC:SY

W. O. Cunningham,

I am registering this so it will not go astray as did mine of Dec. 11.

42/

1374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Nov. 16, 1935 193

Admiral Viscount Saito,
Nakacho, Yotsuya,
Tokyo.

Dear Sir:

I am wondering if Mr. Watanabe is opposed to the appointment of Lee In Pon as our representative in Korea.

Mr. Shelley is not and can never become our representative in Korea. He is an enemy of the Yotsuya Mission, as is Sung Rok So whom we dismissed for unfaithfulness.

Mr. Shelley and his family sailed for America Oct. 28 and it is doubtful if they ever return to Korea.

I would be grateful to you for a suggestion as to the next step to take.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SV

W. D. Cunningham

140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October 11, 1935. 193

Viscount Admiral Saito,
Wakacho, Yotsuya,
Tokyo.

Dear Sir:

I thank you for the interview you kindly gave me yesterday.

In handing you Mr. Watanabe's letter I should have explained that Mr. Shelley never had and never can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Yotsuya Mission. He is an enemy of the Yotsuya Mission. Mr. Shelley has no organization whatever behind him. He came out purely independently - as I did. He was not "despatched from the church of Christ in America" - as Mr. Watanabe has been led to believe.

I alone am responsible for the support of the workers and the work of the twenty-five churches and sixty-four Sunday Schools of the Yotsuya Mission. Mr. Shelley has no churches, no Sunday Schools and, I believe, no workers. Mr. Watanabe suggests that Mr. Shelley and I talk the matter over and decide which one will become superintendent." He might as well have suggested that we talk the matter over and decide which one would live in my house. Mr. Watanabe requires that I secure the consent of Mr. Sei Roku So to the appointment of Mr. Lee In Pom as Yotsuya Mission representative in Chosen. I dismissed Mr. Sei Roku So as incompetent and he is now, like Mr. Shelley, an enemy of the Yotsuya Mission, and of course would refuse to consent to the appointment of Mr. Lee.

Since I alone appointed Mr. ^{Sei}~~Sei~~ do I not have the power to dismiss him? I tried to make this matter clear to Mr. Watanabe. Evidently I failed.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ill be greatly appreciated.

respectfully yours,

WDC:SV

W. D. Cunningham

1413

昭和十年九月二十八日

朝鮮總督府 學務局

ダブルユー、デイ、
カンニング、ハム、



布教管理者變更ニ關スル件

普教會朝鮮布教管理者京城府崇四洞四番地成樂館ヲ仁川府松岷里八
 五番地李宜範ニ變更相成タル趣ヲ以テ之ガ手續方ニ關シ難ニ御照會
 相成候處布教管理者ノ變更ニ伴ヒ自然布教管理事務所京城府需島洞
 一〇六番地ヲモ變更スルノ必要アルヤニ思科セラレ便宜兩者變更届
 ノ様式別紙ノ通送付致候條右ニ基キ適宜該當事取捨ノ上新舊布教
 管理者連署ヲ以テ届出シメラルル様御取計相成度此段及回答候也
 追テ米國基督教會 (Church of Christ) ヲリ朝鮮布教ノ
 爲派遣セラレタル趣ヲ以テ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一五番地ゼ、

朝鮮總督府

ミカエル、シエリ、ヨリ布教管理者ノ届出有之候處右派ハ皆派
 ト同一ノモノニアラズヤ果シテ然リトスレバ布教管理者二名ヲ撤
 クノ必要ナカルベク貴下ト何人ト御打合ノ上何レカ一人ヲ布教管
 理者トキテラレテハ如何此ノ點ニ關シ何分ノ御回答相成度申添候

1414

556

身分証明書

京城府桂洞一三二

成樂紹

右者在朝鮮當教會放役者ナルコトヲ
証ス

追テ朴興順ハ無關係者ナリ

一九三二年二月八日

東京四谷教會 (一九三二年設立)

管理長 タブリス、ヲ、カンニングハム

二月 羊 德 啓 子

1431

517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Sept. 19, 1955

His Excellency Toyohiko Matsushige,
Chief of the Bureau of Education,
Government General, Keijo, Korea.

Dear Sir:

August 28 I wrote you enclosing a note from
former Governor General Saito asking that the name
of I. P. Lee be recorded instead of Sung Kok So as
representative of the Yotsuya Mission in Chosen.

No reply has been received. Should I have
given further details in the matter?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SY

W. D. Cunningham

143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August 28, 1935

His Excellency Toyohiko Watanabe,
Chief of the Bureau of Education,
Government General, Keijo, Chosen.

Dear Sir:

I am enclosing a note of introduction from
Viscount Admiral Saito.

Some years ago I appointed Mr. Sung Rok So
as Yotsuya Mission representative in Chosen. I
wish now to have Lee In Pom registered as my
representative instead of Mr. Sung. I trust you
will do this. *Mr. Lee lives at 96 Hogenri, Jinson.*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DC:SY

W.D. Cunningham

1435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March 28, 1934

Governor General,
Keijo, Korea

Dear Sir:

A letter from Korea tells me you want to know if
Sung Kok So is our representative in Korea.
No, Sung Kok So was dismissed last year and Lee
In Pyun or Jinsen, Song Hyun Ki, was appointed in
his stead.

The name of our church is church of Christ.

Respectfully yours,

W. D. Cunningham



1440



3
7/1/34

57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March 27, 1926 193

Ghosen Sotokufu
Keijo, Korea

Dear Sir:

Has your office endorsed the appointment of
Mr. Lee In Pom of Jinsen as representative of the Yo-
tsuya Mission in Ghosen? I enclose postage for reply.

respectfully yours,

W. D. Cunningham 1443

WDC:DAK

三三

單

朝鮮總督府
11.8.21
官報掲載

學務局長

社會課長

事務官

原出年月日 昭和十一年七月八日	舊教派名 東京回谷宣教會 基督教會	新教派名 基督教會 朝鮮宣教會	布教管理事務所所在地 京畿道仁川府松岷里千島地	官報掲載案 記帳及夜合濟 ● 教派名稱變更ノ旨 届出テタル者左ノ如シ 教派名變更届
--------------------	-------------------------	-----------------------	----------------------------	---

月 年 日 時

344

0447

11/8/21
117
P54

津 事 業 報 告

昭和十二年七月八日

作川所松見里八十三番地

本報社

東京道 11.7.11

朝鮮總督 官印一號

記

一 舊教派、名稱 東京回谷聖教會基督教會

一 新教派、名稱 基督教會朝鮮基督教會

一 變更、事由 已悉本報第八北米會衆國外ニ於テ

此教派、東名ヲ "Church of Christ"

ト云フ譯スニ基督、教會、ナリ

ナリ最初布教局ヲ提出スル時ニ

前布教管理員見成棟陽ガ認

可ヲ得ル便宜上監督カニシテ公

信所ナリトシ東京市回谷区口名ヲ

冠稱トシテ東京回谷聖教會基

督教會ト名ヲ附ケ且、當時ニ

監督ト、通信文カ認メテ英文ヲ

以テ教互ニ曉昧、事不尠、連絡

不整ニ關係上教派名ニ付テ至現

在、名稱、ナリテ錯誤ナシトシ

次第ヲナリテ不

0 0448

June 25th, 1936
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

朝鮮總督 殿

To Whom to be Concern:

We have much pleasure in use the name
本教派名ヲ基督教會ト呼ビトス
"Church of Christ" trusting that you can allowed to change
福音教ト稱シ 何卒在米、教派名更ニ各堂教會基督教會
the name Tokyo Yotsuya Mission into "Church of Christ for
一信ニ基督教會朝鮮堂教會ト更ニ改稱ニ付御禮、上御禮可
Korea". We are trying to get away from all denominatio-
相成度候。 原名ハ只基督教會、ソレハ敢テ何等類子ヲ添付
nal practices and therefore, we must not change the name
致難ク果見、通リ永久不變ニ共、見テ使用ニ得來ニ絶對成度
of our Church of Christ, any more in the future.
不致痛也

Concerning this matter will be appreciated.
御事情ヲ深ク御禮致名候
Yours truly,

WDC 33

W.D. Cunningham
ダブリン、デー、カニンガム

337

0450

二八

要評
添附切手版
開一三下

完結
未完結

誠報日月行施



昭和十一年七月十七日
日誌
第 一 號

記
帳
簿
一
七
二
五

校
印

分
發
簿

1444

約
督
政務總監

主務
學務局長
社會課長

外
通譯官

文書課長

主任

件名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布教ニ関スル件

朝鮮總督府

米國オハイオ州シンシナチ市
基督教復興協會長

レオネル・マイアース

月 羊 包 番 号

576
1071

日
月
年
1
8
5

五月二十五日附師照會ニ係ル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

教會ノ朝鮮ニ於ケル布教ニ関スル件左記ノ通ニ回

答ス

記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ニ於テハ布教管理者

試樂經ノ
李寅龍ヲ

自定ノ昭和七年六月十日布教ヲ為スベキ旨届出

現在布教所設置ノ届出ヲ為シタルモノ三箇所アリ
右前記試樂經ニ於テ昭和十一年一月十日附ノ以テ布教管理者ヲ辭シ同日
附ニテ現布教管理者李寅龍ヲ届出スルモノアリ

谷田

一、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阿峴教會

京城市阿峴町五七番地

二、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京城市教會

京城市積善町一九番地

三、基督教會 仁川教會

仁川府松峴里八九番地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TRUSTEES
LEON L. MYERS
 PRESIDENT
D. A. TRINKLE
 VICE PRESIDENT
G. L. PARIS
 SECRETARY
IRA D. MATTHEWS
 TREASURER
RALPH L. RECORDS
JAMES DEFOREST MURCH
W. H. HARLER
L. L. HINTON
J. E. DE GAFFERRELLY
R. E. ELMORE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ADLE ADDRESS "CHRISTIAN" CINCINNATI
CINCINNATI

ADVISORY BOARD
J. E. THRIFT
 CHAIRMAN
BYRON CASSELL
GIBBIE L. REEVES
A. S. CROUCH
D. N. SHIRLEY
DR. J. H. WILLIS
JAS. G. HURST
EARL CHILDERS

"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UNTO EVERY CREATURE" MARK, 16:13

6/25/1968



OFFICIAL ORGAN
 OF THE RESTORATION HERALD

Governor General, Korea.
 Seoul, Korea.
 Most honored sir,-

If I have not addressed you by your proper

title or in the manner which is proper will you please forgive as I do not know the forms proper for your office and country.

This letter is written to get official information as to certain points regarding our missionary work in your country. Conflicting reports continue to reach our office.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regards matters of fact and which ought to be a matter of record in your files. I enclose a circular letter which includes the matters about which we receive conflicting statements.

Briefly and to the point what we want to know from your office is:
 1. Is W.D. Cunningham going missionary work with the legal permi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s claimed in No. 1.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2. Does W.D. Cunningham have twelve ~~missions~~ churches in Korea, operating with the legal consent and knowled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set forth in No. 2.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This letter is not an effort to gather material to embarrass W.D. Cunningham. If your reply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these twelve churches are actually operating in Korea under the approval of your honored Government we shall be most happy to learn from your office confirmation of such facts. We are friends of W.D. Cunningham and desire to learn the truth from official sources to sustain us in our confidence in him in the face of conflicting statements about his work.

韓國總督府社會部
 11月7日
 10時



We enclose stamps for reply and hope for an early answer to our questions. We will gladly pay whatever incidental expenses may accrue in securing this information.

Yours in Christ,

Leon L. Myers
 PRESIDENT

1453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Aug. 15, 1935.

To You as a Lover of Truth and Honor:

Before me lies a pile of letters—circular and personal—all written by J. M. Shelley of Korea to faithful rope-holders of the Yotsuya Mission seeking to win their support by vilifying the Yotsuya Mission.

I want to make proper allowance for the utter lack of experience on the field, but must call attention to a number of glaring untruths and dishonorable attitudes unworthy of a Christian. In personal letters and in a circular letter dated May 23 and mailed to our rope-holders, Mr. S. asserts:

① The Yotsuya Mission has no government permission to work in Korea, is working secretly and in violation of law, and our churches are liable to be closed in disgrace at any time. There is absolutely no truth in this. We have, and always have had, government permission to work in Korea. I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in Seoul (a personal acquaintance and formerly a near neighbor in Tokyo) before beginning work in Korea, learned all the legal requirements and observed them every one. July 23, 1935 I visited the Governor General's office in Tokyo to learn if there were any changes in the law. There were none. "Working secretly"? When granting a thousand yen bonus to our Mission a few years ago to help pay for the first mission building ever erected in Japan proper for the benefit of Koreans, the government sent us a generously-worded letter commending our efforts for Koreans. "Secretly and against the law"?

② Only two ministers are employed to care for our twelve churches in Korea. We have nine salaried workers in Korea and many volunteer workers. All the churches are well cared for.

③ We have dismissed fifteen men. We would readily dismiss that number or more if necessary to maintain our N. T. standards, but not half that number have been dismissed.

④ Our workers in Korea want to work with him. (Mr. S. has met the workers in only two of our twelve stations). One man was so incensed by the dishonorable efforts made to win him away from the Yotsuya Mission that he wrote saying even if we insisted upon his working with Mr. S. he would refuse. (An Oriental teaching honor to an Occidental!).

⑤ We used pressure to keep him in Tokyo. That "pressure" consisted of a mere suggestion. It was apparent before he reached his field that Mr. S. knew a thousand times as much about mission work as would know five or ten years hence, and we believed it would be wise for him to get a little experience in older missionaries before plunging into a new field all alone. He had and has nothing to learn.

Notice the standard of honor—or lack of it—in the following:

1. I sent him a long list of our best rope-holders and wrote them personal letters asking them to assist Mr. S. They did so. He used that list in mailing out his circular letter of May 23 in which he viciously, but rather stupidly, misrepresents our mission. A California friend received a copy of that letter and promptly sent us 500 dollars.

2. He accepted the hospitality of our home for himself and family for a week while plotting and working against us.

3. He accepted 130 dollars from the Yotsuya Mission to help pay his passage to Korea—and used it against us.

4. As he sees it, the only reason why the Yotsuya Mission evangelists are not working with him is lack of enough funds on his part to buy them over. An honorable mind would see two other reasons—the evangelists themselves and the Yotsuya Mission.

5. Mr. S. openly and brazenly appeals to our rope-holders for funds with which to win our workers away from us, and declares his willingness to take over all our evangelists in Korea if his supporters so desire!

Remarkable mental gymnastics—notice the contradictions:

1. He tells of one of our churches of a hundred members of whom only forty have been baptized, and yet declares we do not practice open-membership! (Our attitude on open-membership is well known).

2. He promised cooperation and has practiced only opposition.

3. Our work in Korea is carelessly managed, and yet carefulness is proven by the weeding out of unworthy men.

The many critical comments on that circular letter which have been sent to us indicate that we have nothing to fear from its results.

We sign this letter with regret that it is necessary to waste time and postage in defending the Lord's work.

W. D. CUNNINGHAM, Director
Emily B. Cunningham
Edith Shimmel
Ethel Jones.

1454

583

回答英譯文

29th July, 1936.

Mr. Leon L. Myers,
President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ourth and Elm Street,
Cincinnati, Ohio, U.S.A.

Dear Sir:

In reply to your letter of the 25th May last in which you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mission work of the Tokyo Yotsuya Mission in Chosen we beg to give you the following indications.

The Tokyo Yotsuya Mission, appointing Seirakusho (Song Wak So)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work here, presented its application to commence work on the 11th June 1932.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eirakusho resigned his post as superintendent on the 10th January 1936, and on that day Eihinhan (Yi In Pom) was reported as successor to Seirakusho.

The churches above mentioned are;

1. 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2. 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3. 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
No. 89 Shokenri, Jinsen.

Yours faithfully,

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1456

585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TRUSTEES
LEON L. MYERS
 PRESIDENT
O. A. TRINKLE
 VICE PRESIDENT
L. L. PARIS
 SECRETARY
IRA D. MATTHEWS
 TREASURER
RALPH L. RECORDS
JAMES DEFOREST MURCH
W. M. MANLER
L. L. HINTON
J. E. DE GAFFERBELLY
R. E. ELMORE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ABLE ADDRESS "CHRISTIAN" CINCINNATI
CINCINNATI

ADVISORY BOARD
J. E. THRIFT
 CHAIRMAN
STRON CASSELL
GIRNIE L. REEVER
A. B. GROUND
D. W. SHIRLEY
DR. J. H. WILLIS
JAN. W. HURST
KARL CHILDERS

"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UNTO EVERY CREATURE' " MARK. 16:15

10/6/36

OFFICIAL ORGAN
 THE RESTORATION HERALD

Governor General,
 Korea, Chosen,

My dear and honorable Sir,-

Please look over the enclosed writings and make such investigations as your honorable Government cares to make to acquaint me with the facts as they are found by your office. This I would appreciate very much especially if your honor could give me sufficient details as to be conclusive either one way or the other.

Yours in Christ,

PRESIDENT

Leon L. Myers



162

1460

388

Please return this

Route 3, Eugene, Ore.
Sept 24, 1936

Leon L. Myers
701-702 People's Bank Bldg
Cincinnati, O.

Dear Brother Myers:

Because of a letter on page twelve of the September Restoration Herald, I am moved to write you a few lines. I am writing in the kindest christian spirit and trust that you will receive this note as coming from one who desires to help and not to criticize.

At the bottom of this letter you add ~~this~~ this statement: "This letter is self explanatory and will we hope fully satisfy those who wanted exact information upon the subject." Brother Myers, I am wondering if this letter is really self explanatory, even to you?

Mr. Tominaga's letter states that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nd he gives the addresses of the three. One is in Jinsen, which is Japanese for Chemulpo, and the other two are in Keijo, which is Japanese for Seoul. Do you know that these are the three churches which are mentioned in the affidavit by H. Takeuchi, a copy of which I enclose? Do you know that one address is a cabbage patch, the second a graveyard, and that the third is a number in the heart of the business district of Jinsen, and that there are no churches at any of these addresses? (Please note altho Mr. Tominaga gives the Japanese transliteration, rather than the Korean, yet the numbers are identical.)

Do you remember that the Tokyo Christian for June 1935 gives the number of the Korean churches as twelve.

Did you note that Song Nak So continued to hold the Yotsuya permit until January 10, 1936, altho he had not been employed by that Mission for years?

Did you remember that prior to 1932, according to this letter, there was no permit for the Yotsuya Mission, altho they claim to have started their work in 1923?

Did you know that Yi In Pom is one and the same as I. P. Lee who has been the superintendant of the work of the Yotsuya Mission in Korea ever since Song Nak So was discharged, several years ago? And did you notice that altho the permit was officially transferred to him on Jan. 10th, 1936, yet up to the date of Mr. Tominaga's letter, July 29, 1936, none of the twelve churches mentioned in the June 1935 P. C. had been reported to the Korean Government?

Do you know that this means that the Yotsuya Mission is still working illegally in Korea altho they now have a permit under which this practice could be corrected?

1462

590

It was easy for me to have the above understanding of Mr. Tomimaga's letter because of outside information which I had received in Korea, perhaps you knew all these things also, but I fear that the casual reader of this letter would only gather the information that the Yotsuya has, and did have, a permit in Korea and that three churches were reported under that permit, and therefore any criticism were unjustified.

I fully realize the tremendous pressure which has been brought here in America against the spread of the truth concerning the Mission situation in Korea. Since the death of Mr. Cunningham I realize the impossibility of spreading this truth and have ceased to press this point. But I do plead with you, and all who are sincerely interested in this ripe field that no hindrance be placed in the way of the effort now being made by Brother Chase.

How terribly the Koreans need the help of a Christian leader who is a resident on the field! Knowing the facts as you do could you not do something to help his going at this critical time?

I am fully convinced that i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Yotsuya Mission would face the facts they would not only help Brother Chase in his present venture, but would also see that all the Korean work be given to his oversight.

God knows, but possibly you are the one who could get them to do just that.

I am praying that God will use you mightily in the spread of His Kingdom.

Sincerely yours,

J. Michael Shelley

J. Michael Shelley

1463

571

Please return this

H. TAKECHI

Barrister at Law (Seoul) Keijo, Oct. 5, 1935

This is to certify that I have checked the following statements concerning the Yotsuya Mission in Chosen, with the records in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in Seoul, and also with the administrative laws governing missions in Chosen, and have found them to be true and accurate in every detail.

1. It is illegal to engage in preaching, or to organize churches in Chosen without a permit from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2.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must reside in Chosen.
3. The one who establishes a new church must report the fact to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report must be indorsed by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4. The qualifications of the preacher and the name and place of the church must be reported, and when any change is made in pastors, or in the location of the church, the same must be reported to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within ten days.
5. In case of the failure of a mission to secure a permit, or to report the churches established under a permit, the police have power to close the church.
6. While Song Nock So holds the permit for the Yotsuya Mission the Government General will not issue another permit to that mission for the territory of Chosen.
7.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must sign all reports.
8. Song Nock So, residence, No. 4 Shoong So Dong, Seoul, has produced a report to the Government General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Yotsuya Mission, Church of Christ, Tokyo, Japan, dated June 17th, 1933. He holds the only permit issued to that mission for Chosen.
9. Under the Yotsuya Mission permit held by Song Nock So, only three churches were reported, as follows:
 (1) December 4th, 1932, at No. 57 Arhiun Ri, Yong Kang, Myon, Seoul.
 (2) December 7th, 1932, at No. 190 Chak Sun Dong, Seoul.
 (3) February 1st, 1933, at No. 89 Song Hium Ri, Chemulpo.
10. There are no churches located at the addresses given above, and no record of their having been transferred. I personally visited all three locations today and found no church at any of them.
11. In the Tokyo Christian for June, 1935, page one, column two, I hav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Yotsuya Mission has eighteen groups of Christians in Korea, including twelve churches."
12. If this statement is true, these twelve churches are working illegally, and none of them have been reported.

IN TESTIMONY WHEREOF, I hereby affix my hand and seal.

HIROKATA TAKECHI (seal)

Barrister at Law

From reports that are reaching us from the U.S. it has become quite apparent that W.B. Cunningham, having largely wrecked the work of John F. Chase, and the three single ladies, is now determined to wreck not only our reputation, but the work we are endeavoring to do here. We do not believe that the Homefolks would tolerate this, if they had the facts. We have decided to return home with these facts, as it seems the only way. We are asking you to stand by us until the evidence is in. From the time you receive this letter, please send all offerings and communications to us, in care of Clair Hutchison, Corona, California.

J. Michael Shelley

1464

57

昭和九年三月

治安情況

檢事正

次席檢事

總務課

京畿道警察部



국사편찬위원회

恩相係檢事

次席檢事

檢事正

昭和十三年九月

治安情況

京畿道警察部



국립중앙도서관

朝鮮總督府官報

第一號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

龍山

印刷局

○詔書

朕東洋ノ平和ヲ永遠ニ維持シ帝國ノ安全ヲ將來ニ保障スルノ必要ナルヲ念ヒ又常ニ韓國カ禍亂ノ淵源タルニ顧ミ曩ニ朕ノ政府ヲシテ韓國政府ト協定セシメ韓國ヲ帝國ノ保護ノ下ニ置キ以テ禍源ヲ杜絶シ平和ヲ確保セムコトヲ期セリ爾來時ヲ經ルコト四年有餘其ノ間朕ノ政府ハ銳意韓國施政ノ改善ニ努メ其ノ成績亦見ルヘキモノアリト雖韓國ノ現制ハ尙未ダ治安ノ保持ヲ完スルニ足ラス疑懼ノ念毎ニ國內ニ充溢シ民其ノ堵ニ安セス公共ノ安寧ヲ維持シ民衆ノ福利ヲ増進セムカ爲ニハ革新ヲ現制ニ加フルノ避ク可ラサルコト瞭然タルニ至レリ

朕ハ韓國皇帝陛下ト與ニ此ノ事態ニ鑑ミ韓國ヲ舉テ日本帝國ニ併合シ以テ時勢ノ要求ニ應スルノ已ムヲ得サルモノアルヲ念ヒ茲ニ永久ニ韓國ヲ帝國ニ併合スルコトヲセリ韓國皇帝陛下及其ノ皇室各員ハ併合ノ後ト雖相當ノ優遇ヲ受クヘク民衆ハ直接朕カ力撥撫ノ下ニ立テ其ノ康福ヲ増進スヘク産業及貿易ハ治安ノ下ニ顯著ナル發達ヲ見ルニ至ルヘシ而シテ東洋ノ平和ハ之ニ依リテ愈々其ノ基礎ヲ鞏固ニスヘキハ朕ノ信シテ疑ハサル所ナリ

朕ハ特ニ朝鮮總督ヲ置キ之ヲ朕ノ命ヲ承ケテ陸海軍ヲ統率シ諸般ノ政務ヲ總轄セシム百官有司克ク朕ノ意ヲ體シ

テ事ニ從ヒ施設ノ緩急其ノ宜キヲ得以テ衆庶ヲシテ永ク治平ノ慶ニ賴ラシムルコトヲ期セヨ

御名 御璽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

- 大内閣總理大臣兼 侯爵桂 太郎
- 陸軍大臣 子爵寺內 正毅
- 外務大臣 伯爵小村 壽太郎
- 海軍大臣 男爵齋藤 實
- 內務大臣 法學博士 男爵平田 東助
- 逓信大臣 男爵後藤 新平
- 農商務大臣兼 小松原英太郎
- 司法大臣 子爵岡部 長職

朕天壤無窮ノ丕基ヲ弘クシ國家非常ノ禮數ヲ備ヘムト欲シ前韓國皇帝ヲ冊シテ王ト爲シ昌德宮李王ト稱シ嗣後此ノ隆錫ヲ世襲シテ以テ其ノ宗祀ヲ奉セシメ皇太子及將來ノ世嗣ヲ王世子トシ太皇帝ヲ太王ト爲シ德壽宮李太王ト稱シ各其

朝鮮總督府官報 第一號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公曆)即光緒六十九年七月二十九日(陰曆)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3年度 第416表

『1933年(度)末 教會堂 布教所 講義所 現況』

基督教	
天主教	327
朝鮮耶穌教長老會	2,583
基督教朝鮮監理會	814
聖公會	87
露國正教會	6
日本基督教會	12
日本메소제스트教會	16
日本組合基督教會	7
第七日安息日耶穌再臨教	129
東洋宣教會	149
救世軍	74
朝鮮基督教會	27
東洋宣教會호리네스教會	7
朝鮮會衆基督教會	26
基督同信會	2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3
總數	4,269

宗教互勢調査表 (外国人布教)

計	基督教										備考
	東京四ヶ所 宣教會	五旬節教會	各派聯合會	中華基督 教會	英國正公會	朝鮮聖公會	新加坡 聖公會	救世軍	東洋宣教會	朝鮮聖壇教會	
四三三六五				一六	一七七	三〇八二	四二二	三四四	一〇〇八	一六六六四	昭和三年 一五六九二
四三三七五				二二	一三三	三二二〇	五六四	七〇五	一〇五一	一五一四四	昭和四年 一五八五五
四四〇〇七				二二	一三〇	三一六六	四五二	六九四	一三七六	一五四三四	昭和五年 一七〇七二
四五五三四			七三	二二	一九三	三三五四	四八五	七八〇	一四三五	一五八二六	昭和六年 一六九七二
四七一九八			一〇二	二二	二〇八	三六一六	五九六	六二五	一六一七	一五七八五	昭和七年 一八〇三四
四七六八二	三〇 昭和八年より布教	九五 昭和九年より布教	一一一 昭和十年設立	八三	二二八	三〇四八	五八六	八二七	二一三三	一五六八八	昭和八年 一九一〇二
											備考

調査員 関野 昌一

宗教の趨勢調査表 (外國人布教)

年	教		督					基					教
	合	計	五向部	各派	省	露國	朝鮮	安東	世	小洋	監理	長老	
昭和五年	4007				22	130	316	452	694	1376	544	602	607
昭和六年	4554			73	22	193	354	485	780	1455	582	643	672
昭和七年	4198			102	33	208	366	586	827	1332	578	576	602
昭和八年	4783	30	95	111	83	238	408	586	827	1332	578	576	602
昭和九年	5350	73	140	137	74	139	494	658	753	1455	582	649	691
昭和十年	5466	87	131	94	68	135	587	540	846	1802	679	779	806
昭和十一年	5384	130	115	308	86	178	584	1237	931	1795	622	622	656
昭和十二年	5721	97	142	289	65	161	650	1208	1294	1866	655	655	695

備考

昭和七年



寺院

創立許可

布教管理の件
其他

0012